

광주, 방역·교육당국 수능 관리 '만전'... "시민 협조 절실"

주요 선별진료소·검사 기관 연장...조기 검사 체계 강화 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 등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각 시험장에 방역·의료 인력 대기... "방역 수칙 준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산발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방역·교육당국이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수능 시험을 위해선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역설했다. 광주시·시 교육청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수능현장관리반을 꾸려 수능 시험 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선별진료소·검사 기관은 연장 근무에 돌입한다. 수능을 앞두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수험생을 신속히 검사해 고사장 내 추가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역 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는 2일 하루 운영 시간을 4시간 더 연장,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도 오는 2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이틀간 24시간 검사 체계를 갖춘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시험 대책도 마련됐다. 수험생 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빛고을전남대병원 내 2개 병실에 설치된 특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특별 시험장에서는 8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3인 1조로 구성된 감독관이 감염 방호복을 착용한 채 투입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119구급차를 이용해 광주 인성고·송원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수



험생은 각 시험장마다 별도 설치된 공간으로 옮겨 시험을 본다. 특히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원격수업을 활용하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해주시고. 모든 시험장에는 방역 담당자와 응급구조사가 배치된다. 수험생 책상에는 방역용 반투명

칸막이가 설치된다. 수능 전후로 시험장은 특별 수시 방역이 이뤄진다. 지역 모든 중·고등학교는 당분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방역·교육당국은 수험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험생에게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학원·교습소 등의 이용 자제를 요청했

다. 또 증상 발현 또는 확진자 접촉이 확인되면 곧바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에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5대 행동강령을 제언했다. 강령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경제활동 ▲가족·직장 외 외부인과의 만남·모임 자제 ▲대화시 마스크 착용·식사 중 대화 자제 ▲연말 외부 모임 지양 ▲이상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방역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수능이 끝날 때까지 오로지 수험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시민 모두의 협조가 있어야 안전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신봉우기자

광주노동청, 광양제철소 특별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걸쳐 준수 여부 점검

광주노동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1일부터 18일까지 특별 감독을 벌인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광양제철소의 1고로 주변에서는 노후 산소 발전설비 철거에 앞서 산소 배관 차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화재·폭발로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이와 같은 화학 사고 재발을 막고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감독을 추진한다. 이번 감독에선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의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노후화 설비, 산소 공급배관·밸브 등 유지 관리 실태, 정비·보수 시 안전 작업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평소 위험 작업을 많이 하는 협력업체 업무 영역도 실태를 들여다본다. 이번 감독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0명이 투입된다. 노·사 관계자도 함께 참여한다.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시정명령·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를 내린다.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산소 배관'의 화재·폭발로 3명이 숨진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에서 지난달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남경찰청, 광양경찰서, 소방조사단, 노동부 등 합동 감식반 20여 명이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안전 문화가 확산,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자리잡도록 돕는다. 임승순 광주노동청장은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대형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노동청은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고자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상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유나기자

전남대병원 코호트 격리 해제...18일 만에 진료 정상

중증환자 중심 응급실은 4일부터 정상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일부 병동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됐던 전남대학교병원이 정상 운영된다. 전남대병원은 1동의 코호트 격리가 이날 해제됨에 따라 모든 병동을 정상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격리 해제는 원내 감염확산 가능성이 낮아졌고 자가격리됐던 의료진이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뤄졌다. 또 의료진이 진료현장에 복귀하고 있어 외래 진료와 수술실 운영, 입원 등 모든 진료시스템을 코호트 격리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개된 응급실 진료는 4일부터 모든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외래진료는 현재대로 비대면 진료로 병행된다. 외래를 통해 병원에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안영근 병원장은 "지난 달 17일부터 사상 초유의 코호트 격리를 겪게 된 전남대병원은 그간 개인방역의 미흡함에 대해 반성했다"며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지역민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며 모든 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예전



처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 13일 신경외과 의사의 첫 확진 이후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료진, 임주업체 직원과 가족 등 100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1동은 동일집단 격리 조치됐다.

최이슬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가동 정상화'

접촉자 검사는 계속

협력사 직원 발 잇따른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 가동을 멈춘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1일 오후 3시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정상화 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전날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곡성공장 내 확진자 동선에 긴급 방역과 자체적으로 정밀 방역을 추가로 실시한 가운데 방역 당국으로부터 공장 재가동승인을

받았다. 접촉자로 분류된 200여명에 대해서는 즉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접촉 강도에 따라 2주간 자가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선 광주 서구 주민인 협력사 직원 A씨(광주680번)가 지난날 28일 처음으로 확진됐다. A씨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광주676번(대형마트 직원)'의 가족이며 지난날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맛집에서 축구동호인 7명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A씨가 설비수리 차 방문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내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100여명과 직·간접 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전날 같은 협력사 직원 B씨(광주690번)에 이어 A씨의 접촉한 곡성공장 생산직 사원 C씨(광주708번)도 잇달아 확진되자 사측이 방역을 위해 공장 가동을 일시 멈췄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